

목포 시민의 날 “현행대로” vs “변경해야” 논란

〈목포항 개항일 10월1일〉

〈목포진 설치일 4월15일〉

목포항 개항일 놓고 자주적 개항 vs 강압적 개항 주장 맞서
市, 역사적 검증·유래 등 자료 수집 통해 제조명 나서 주목

‘목포(木浦)라는 지명이 언제 처음 사용됐을까’ 목포의 정명(正名)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 정명 찾기’용역 보고회(사진)를 갖고, 목포 개항일에 대한 역사적 사실 검증과 목포 명칭 사용 유래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목포시민의 날을 제조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목포 시민의 날은 목포항 개항일인 10월 1일에 맞춰 제정된 이후 50여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개항을 둘러싸고 ‘자주적인 개항’이라는 주장과 ‘사실상 일제의 강압에 의한 개항’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시민의 날 변경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종 실록 35권에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함규가 1897년 7월 3일 토요일 밤 의정부에 청의서를 제출해 ‘1897년 10월 1일을 기해 목포와 진남포를 외국과의 통상을 위해 개방하고 외국인의 거주무역을 청허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를 근거로 앞서 개항지인 부산과 인천은 조약에 의한 개항인 반면 목포는 조약이 아닌 칙령에 의한 개항으로 ‘자주적인 개항’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외적으로는 칙령에 의한 개항이지만 내적으로는 일본의 ‘강압에 의한’ 개항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 10월 1일은 개항 이전의 역사가 소홀히 돼 목포 역사를 110년 남짓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내포돼 있다.

이에 따라 목포진이 설치된 날을 시민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1439년 4월 15일(음력) 목포에 만호가 차견돼 목포진이 설치됐다. 따라서 목포진 설치 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할 경우 목포는 600년 역사를 간직한 역사적 도시로서 위상을 지니게 된다.

특히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해 용역사가 목포시민 251명(1대 1 대면조사 방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목포시민



68%가 목포시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포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시민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는 데 가장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날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59%가 ‘목포항 개항일’을 꼽았고 ‘목포진 설치일’은 25%에 그쳤다.

목포에서 보존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는 근대역사관, 유달산, 갯바위, 목포진 역사공원, 삼학도 등의 순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향후 용역이 납품되는 대로 정치·경제·교육·문화예술계를 총 망라하는 전문가 그룹을 결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그룹과 시민들을 포함한 열린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용역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시민의 날 제정 경위와 주장 근거, 문헌 등을 더 보완할 것과 일반시민과 전문가 집단을 구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지금은 공학소녀시대”

목포대, 여중·여고생 220명과 창의체험·토크콘서트

목포대학교(총장 최임) WISET전남지역사업단(단장 박복희)은 최근 도립캠퍼스 70주년 기념관 대강당과 공과대학 일원에서 전남지역 여중·고생 220명과 함께하는 ‘지금은 공학소녀시대 Girls’ Engineering Week (G.E.W)’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4인의 공학자와 함께하는 공학 Talk Concert를 시작으로, 공학자들이 걸은 길을 스토리텔링식으로 강연한 뒤 학생들이 진로·진학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됐다.

또 창의공학 체험프로그램으로 총 6개팀을 구성해 ▲Robot world in HURO(제어로봇) ▲간척학개론(건축) ▲하늘을 비상하는 드론(컴퓨터) ▲기계월드 하타트대(기계) ▲신해

상교량스쿨(토목) ▲Eureka!조선해양(조선) 등 학과소개 및 실험·실습 위주의 체험 활동으로 진행됐다.

G.E.W에 참여한 광양 백운고의 한 학생은 “앞으로 여성엔지니어로 반드시 성공해 사회에 이음을 알리는 사람이 꼭 되고 싶다”며 “언젠가 공학에 꿈을 가진 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 WISET전남지역사업단은 미래의 공학소녀들이 이공계로 진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G.E.W 행사는 물론 찾아가는 실험실, 미리가는 연구실, 진학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학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시, 6억원 투입 ‘영산기맥 트레킹 길’ 조성 추진

목포시가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영산기맥 트레킹 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목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등산로 노후화로 소실되어가는 기맥을 보존하고, 인근 시군과의 등산로 연결을 통한 등산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영산기맥 트레킹 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기맥은 호남정맥 내장산 신선봉과 까치봉 갈림길을 지나 순창 세재봉(530m)에서 분기돼 영광 불갑산(516m),

무안 승달산(318m), 국사봉(283m)을 거쳐 목포 지적산(183m), 대박산(156m), 양울산(151m), 유방산(96m), 산정산(71m), 유달산(228m)에 이르는 총 159.5km 구간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목포시 구간은 지적산에서 유달산까지 총 15km다.

목포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연말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비 6억(국비 3억, 시비 3억)을 들여 숲길 조성 1.215km, 전망 데크, 안내판 95개소, 노면 정비 3552㎡, 수목식재 8700주, 라인마킹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 목포의료원 현지 조사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목포의료원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벌였다.

최근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타 지방의료원의 롤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과 관련해 최태욱 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병실을 둘러봤다.

지난 31일 목포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은 내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 등 3개 진료과에 총 50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24명, 조무사 8명 등 33명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지난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올 6월말 기준 7473명의 환자가 포괄 서비스 수혜를 받았다.

현지를 둘러 본 노경윤 목포시의회 의원은 “시설이 깨끗하고, 간호사 등 직원들의 표정이 밝고 친절함이 인상이었다”면서 “서남권 거점병원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차 운반선 첫 입항...목포신항 자동차 전용부두 운영 청신호



목포신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첫 입항한 자동차운반선 모닝클레어호에서 자동차들이 하역되고 있다.

목포신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자동차 운반선 모닝클레어호가 첫 입항하는 등 자동차 전용부두 운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지난 31일 “지난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목포신항 자동차 부두에 지난 25일 자동차 운반선이 첫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첫 입항한 운반선은 유코가캐리어스(주) 소속 모닝클레어호(6만톤)이며, 평택항에서 기아자동차 환적화물(TS)

1360대를 싣고 자동차부두에 입항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신규 물동량 유치를 계기로 지난 2015년 38만대였던 수출용 자동차화물이 올해는 50만대까지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포신항 자동차 부두(3만톤급)는 지난 2015년 7월 준공돼 부두운영회사로 목포국제자동차부두(주)를 선정 후 부두 운영을 위한 항만보안시설 설치와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을 마무리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수출물량 급

감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4개 선석)가 자동차 처리 전용부두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목포해양수정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포항이 자동차화물 처리 메카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동차 부두 1개 선석과 배후야적장을 추가 건설하는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자동차 화물 유치를 위해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새 얼굴

“시민 행복·지역발전 위해 온힘 쏟을 것”

이 인 곤 목포부시장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과 정열을 쏟겠습니다”

제45대 목포부시장으로 취임한 이 인곤 부시장은 지난 31일 “서남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이 자동차화물 처리 메카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동차 부두 1개 선석과 배후야적장을 추가 건설하는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자동차 화물 유치를 위해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또 “어떤 조직이든 좋은 성과를 내려면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원 간 화합과 단결로 즐겁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

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이 부시장은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목포시에 산적한 해양수산 문제 해결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 부시장은 화순출신으로 기술고시 21회를 통해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다. 진도부군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과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YHB 이동식 에어컨 |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최고로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 ECO

www.yhb.co.kr

PTB7000 | PTB5000 | PTB-W5000(수냉식) | 업소 주방에 최적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프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음식점,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선서버룸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 고온 및 습기에 강력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 대통령 표창 수상기업 | 특별가 공급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 24시간 내 A/S |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발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운영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 062-952-6633 | 인사관리팀: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례동) ☎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 E-mail: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계약금 5% 정액제 |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 전세대 알파공간

문의 062 511-114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사적주택임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시흥 1주에어치런 | 시흥 (주)광신종합건설